

# 사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이는 세월의 무게 앞에 삶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바뀌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화무10일홍'이란 말처럼 인간의 육신은 유한적인 존재여서 젊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늙고 만다. 그러나 육신이 늙는다고 꼭 정신까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질풍노도의 청춘시절을 지나면서 경륜을 쌓아, 보다 성숙된 정신세계를 갖춰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다.

변화를 뜻하는 고사성어로 조변석개와 일취월장이 있다. 조변석개는 아침에 바꾼 것을 저녁에 다시 또 고친다는 뜻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익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의 정책 또는 법령이 자주 바뀌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며, 변덕스러운 성질이나 태도를 비판할 때 쓰이기도 한다.

반면 일취월장은 하루 나아가고 한 달 나아가는 뜻으로, 날로 달로 자라거나

진보하여 나날이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로 중국 주나라의 제2대 성왕이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학문이 광명에 이를 수 있도록 신하들이 서로 도와 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긍정적인 의미의

하지만 대다수 인간들은 한번 마음속에 인식되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려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한번 긍정적인 이미지로 새겨진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한때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사회에 나온 이른바 '전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약사건 등에 연루

그가 아직도 '꼴초'라고 인식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나 사실도 없이 속칭 '카더라 통신'에 의해 전해들은 "아무개는 건방지다더라, 아무개는 돈밖에 모르다더라" 하는 식의 잘못된 내용이 항간에 떠도는 경우도 많다.

우리 고성군은 인구 3만명 남짓의 작은 고장이다. 수십만 수백만명이 사는 대도시와 달리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광명에 이른다'는 일취월장의 참 뜻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릇된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새해에는 지역주민들 모두 일취월장하여,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되길 기대한다.

## 조변석개와 일취월장의 차이

일취월장과 부정적인 의미의 조변석개를 혼동하거나, 일취월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때의 실수로 주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일취월장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는 존경받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 그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되어 구속된 연예인을 그리워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나 일취월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루 두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큰 결심을 하고 담배를 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수년이 지나 이 사람은 이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 최금란 칼럼

교육학박사,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상담과 심리치료에서는 말이라는 신호체계에 의해서 자유연상 등의 기법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그러나 상징체계인 미술(그림 등)은 말로 교류할 수 없는 개인과 개인간의 교류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술치료에서는 어떤 미술활동(매체, 작업)을 통해서 내담자의 마음(무의식)을 표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늘 미술치료사에게 큰 과제로 남게 된다. 즉 어떤 매체가 마음을 표출(드러냄)하는데 좋을까, 어떤 미술작품의 형태가 마음을 드러내는데 더 좋을까를 항상 고려해야한다.

말로 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가 말이라는 것을 통해 심리를 표출하므로 말로 묻고 말로 대답하는 형태가 취해진다. 미술치료

에서는 미술활동(Art work)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므로 "마음표현의 촉진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그래서 미술활동표현을 촉진시키면 마음도 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마음 표현의 촉진방법 고안

특히 아동들의 그림을 존중하고 인정함으로써 치료사들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생각, 느낌, 상념들을 탐색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으며, 아동과 치료사 모두 언어만으로써 보다는 심상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그리기는 더 많은 상호작용과 교환을 돕는 촉매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아동과 미술치료사간의 관계를 더 효과적이고 더 긴밀하게 해 준다(C.A.Malchiodi, 1998).

첫째, 그림그리기는 부적응 아동들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말로는 나

##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2>

### 아동미술 치료의 효과

타내지 못하는 생각이나 경험내용을 그림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림 그리기를 일종의 담화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과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가를 치료사들에게 알려준다.

둘째, 그림그리기는 단순히 그들의 느낌이나 문제점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를 이겨내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치료사의 중요한 임무는 폭력, 학대, 상실, 혹은 재난 등 어떤 정신적 외상이든간에 그림을 통하여 정신적 외상을 이겨내도록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느끼고 있는 바를 표현해보도록 격려함으로써 긴장과 불안을 낮춰주는 것이 그 아이들의 발달에 떨어진 불을 꺼주는 열쇠가 된다.

셋째, 아동들의 그림그리기는 치료사들이 치료목표를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아동들의 그림이나 그림에 대한 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 느끼고 오해한 탓으로 생긴 죄책감, 자기비난, 별반을 공포 등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한다. 그럴 때 미술치료사는 미술활동을 통해 그들을 중재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을 함으로써 그 아동들이 다가올 긴장이나 불안을 미리 깨닫고 풀어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 아동들의 긴장과 불안 풀어내도록 지도

넷째, 그림그리기는 아동들로 하여금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신적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치료사들은 그림을 통해 성장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치료사는 아동들에게 각각의 특수한 목표에 상응하는 미술활동을 설정함으로써 그들이 편안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다섯째, 그림 그리기는 탄력성을 강화한다. 미술경험을 통해 어린이는 예전의 대처기술을 회복하고 새로운 대처기술들을 터득하지도 모른다. 미술작업과정 자체가 일종의 성공적이고 보상받는 업적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즉 그림이나 다른 미술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집국에서

○... 9일 조촐하게 개최된 사무실 개소식 및 필진 위촉장 전달식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 해주셨다. 지역 기관단체장에 대한 초청없이 내부 행사로 치른 탓에 일부에서는 섭섭함을 표하기도 했으나, 주민을 위한 신문이라는 취지에 맞게 진행하였음을 양해바란다.

○... 창간호에 이어 제2호 신문을 준비하는 중에 큰 눈이 내렸다. 지금도 창밖으로는 마른 대지를 축축하게 적시며 눈이 펄펄 내리고 있다.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행인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 눈이 가뭄을 해소하고 봄철 산불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반갑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